

해양수산부 보다나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		보도자료		글로벌 해양강국!
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		배포 일시	2018. 12. 21.(금) 총 4매(본문 2, 참고 2)	
담당 부서	항만개발과	담당자	• 과장 김명진, 사무관 송광용, 주무관 김호성 • ☎ (044)200-5930, 5937, 5938	
보도일시		2018년 12월 24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4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해수부, 목포항 혼잡도 해소하고 안전성 확보한다

- 2018. 12.~2022. 8. 목포신항에 예선·부선 전용부두 건설공사 추진 -

해양수산부(장관 김영춘)는 전남 목포항의 혼잡도를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26일(수) '예선·부선 전용부두 건설공사'에 착공한다.

- * 예선(曳船, Tugboat) : 선박이나 다른 부양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
 부선(桴船, Barge) : 자체 추진능력이 없는 화물운반선(바지선)

목포항은 서·남해지역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·연도교* 공사용 예선·부선 등 선박이 수시로 드나들어 항내가 혼잡하다. 특히, 목포수협 이전 예정지인 목포북항 지역은 어선과 여객선, 공사작업선들이 혼재되어 접안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실정이다.

- * 연륙/연도교 : 육지와 섬/섬과 섬을 연결해 주는 다리

이에, 해양수산부는 목포항의 혼잡도 해소와 정박여건 개선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예선·부선 전용부두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, 입찰과정을 거쳐 26일 건설공사에 착공한다.

이번 공사는 2022년 8월까지 국비 4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며, 목포신항에 480m 길이의 접안시설을 갖춘 예선·부선 전용부두를 건설

하여 총 70척(예산 33척, 부산 37척) 규모의 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예정이다.

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“목포신항에 예산·부산 전용부두가 건설되면 목포항 내 혼잡도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, 이용선박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사업개요

- 목 적 : 목포항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 기타선 및 부족한
 어선 접안시설 추가확보
- 사업내용 : 접안시설 480m, 부대공 1식 등
- 사업기간 : 2017. 3. ~ 2022. 8.
- 총사업비 : 49,530백만원
- 시공사/감리사 : 금광기업(주) 외 1(잠정) / (주)서영엔지니어링 외 1

□ 추진현황 및 계획

- '16. 9. 29 :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
- '17. 3.~ '18. 6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
- '18.12. : 예부선부두 건설공사 착공예정('22. 8. 준공, 44개월)

□ 계획평면도 및 조감도

< 조 감 도 >



< 계 획 평 면 도 >

